

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

[제16호 / 2014. 11. 3 ~ 11. 30]

2014. 11. 3

농촌진흥청

농촌진흥청은 오이, 토마토, 고추, 딸기 등 시설재배 작물에 대한 병해충 발생정보를 발표하오니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농작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주요 발생 정보

예
보

■ 시설작물 노균병·흰가루병 등

- ◆ 적절한 보온과 환기를 실시하여 시설 내의 온·습도가 알맞게 유지 되도록 관리하고, 발생초기에 적용약제를 살포하여 확산방지

■ 토마토·고추 등의 토마토황화잎말림병·토마토반점위조병

- ◆ 토마토, 고추 등 가지과 작물에 발생하는 바이러스병은 병을 옮기는 총채벌레, 담배가루이를 발생초기에 적용약제로 방제하고 병에 걸린 식물체는 즉시 제거

■ 시설작물 총채벌레류·진딧물·응애류·담배가루이·작은뿌리파리 등

- ◆ 시설에서 발생하는 해충은 연중 발생하고, 크기가 매우 작아 발견이 어려우므로 방제시기를 놓칠 경우 피해를 입기 쉽고 바이러스병 등을 전염시키므로 주의 깊게 살펴본 후 발생초기에 적용약제를 살포

원예작물

1. 오이·메론 등의 노균병, 흰가루병 : 예보

- 노균병은 시설 내의 습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(20℃ 전후) 조건에서 발생이 많고, 일조량이 부족하거나 거름기가 모자라 작물 생육이 왕성하지 못할 때 발생이 많음



<오이 노균병>

- ☞ 야간에 보온관리를 잘하여 저온이 되지 않도록 하고, 웃거름 주기와 열매숙기 및 햇볕 쪼임을 좋게 하여 튼튼하게 생육하도록 함과 동시에 습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환기를 철저히 해줌
- ☞ 특히 오이 시설재배 중 환기를 시키는 과정에서 찬바람이 식물체에 직접 닿을 경우 노균병이 심하게 발생되므로 환기를 할 때 유의
- ☞ 병이 발생한 포장은 병든 잎을 일찍 따낸 다음 발병 초기에 적용 약제로 방제

- 흰가루병은 하우스 등 시설재배에서는 분생포자가 공기로 전염되며, 일반적으로 15~28℃에서 많이 발생하고 32℃이상의 고온에서는 발생이 줄어드는 경향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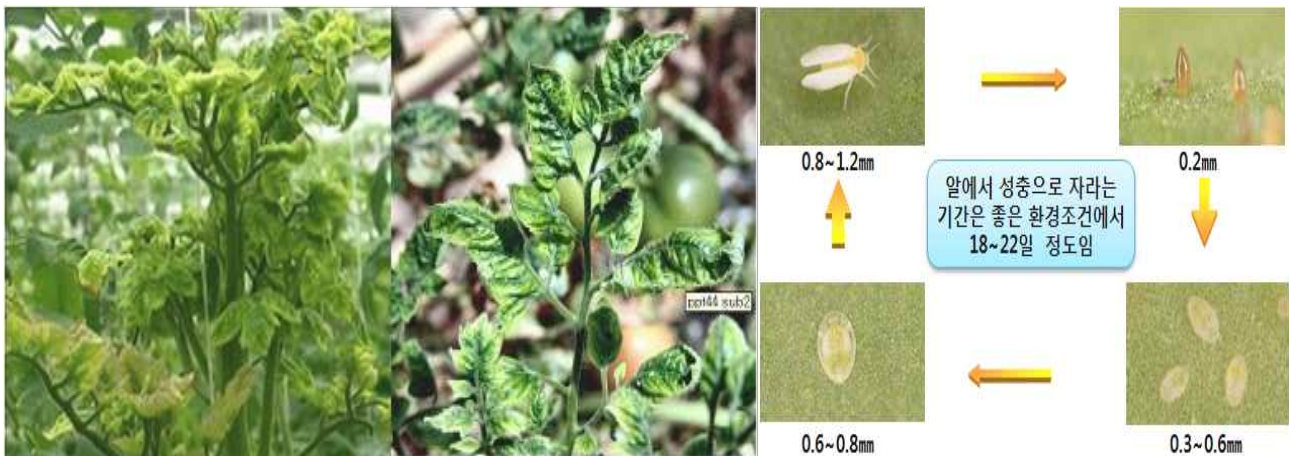


<오이 흰가루병>

- ☞ 햇볕 쪼임이 부족하고 밤낮의 온도차이가 크며 비료기가 많은 조건에서 발생이 많으므로 질소질 비료를 알맞게 주며, 병든 식물은 신속히 제거하고 병 발생 초기에 적용약제로 방제

2. 토마토황화잎말림병, 토마토반점위조병 : 예보

- 토마토황화잎말림병은 담배가루이가, 토마토반점위조병은 총채벌레가 전염시키는 바이러스 병임
- ☞ 병을 전염시키는 담배가루이와 총채벌레는 세대 기간이 짧아 연간 발생횟수가 많으므로 방충망을 이용하여 시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육묘 시 철저한 관리로 병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며 발생초기 천적이나 적용약제로 방제
- ☞ 병에 걸린 식물을 발견하면 즉시 제거하여 병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
- ☞ 병을 매개하는 해충의 방제를 위해 겨울철에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시설하우스는 기온이 매우 낮은 날 한밤중에 갑자기 하우스 문을 열어 방제하는 방법을 활용함



<토마토 황 화 잎 말 림 병>

<병을 전염시키는 담배가루이>



<토마토 반점 위 조 병>

<병을 전염시키는 총채벌레>

3. 시설작물 총채벌레류, 진딧물, 담배가루이, 온실가루이, 응애류, 잎굴파리류, 작은뿌리파리 등 : 예보

- 꽃노랑총채벌레, 오이총채벌레 등 총채벌레류는 오이, 고추, 토마토, 고추 등 시설내에서는 연중 발생하는 해충으로, 방제시기를 놓칠 경우 바이러스병을 전염시켜 큰 피해를 주는 해충임
- 온실가루이와 담배가루이는 가지과 작물에서, 진딧물은 엽채류와 과채류에서 주로 발생하며 식물체의 즙액을 빨아먹는 직접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그을음병과 바이러스병 등을 유발하여 상품성을 떨어뜨림.
- 점박이응애로 인해 딸기가 피해를 받으면 잎이 누렇게 변하여 말라 죽게 됨
- 잎굴파리는 거베라·국화 등 화훼류와 토마토·가지 등에서 발생이 많으며, 잎 속에 굴을 파고 다니면서 잎살을 갉아먹는 피해를 줌.
- ☞ 이들 해충은 일단 발생되면 방제가 어려우므로 방충망을 설치하여 시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, 크기가 작아 발생 상황을 알기 어려우므로 끈끈이 트랩을 매달아 주의 깊게 살펴봄
- ☞ 해충에 따라 발생초기 천적을 투입하여 재배하거나, 적용약제로 방제 하되 안전사용기준을 지켜 계통이 다른 약제로 바꾸어 가면서 살포
- 작은뿌리파리는 밭작물, 채소, 화훼 등에서 전 생육기간 동안 발생하며, 성충은 유기물이 풍부한 상토 또는 양액육묘의 암면 큐브 위 이끼에 산란하고 부화유충은 지제부와 뿌리에 해를 입혀 시들음병이나 청고병과 같은 지상부 시들음증상을 유발
- ☞ 유충은 감자 절편에 잘 유인되기 때문에 깍두기 모양의 크기로 절단 하여 작물의 뿌리 주변에 놓아두면 발생여부와 발생량 예찰에 이용할 수 있음
- ☞ 성충은 노란색 끈끈이 트랩을 지상부 50cm 이하에 설치해 두면 발생 여부와 발생량 예찰에 도움이 됨



<어른벌레>

<어린벌레>

검역병해충

1. 딸기세균모무늬병 : 예보

- 세균모무늬병은 생육 초기 잎 뒷면에 작은 수침상이 나타나고 점차 확대되어 잎 앞면에 점무늬를 형성
 - 후기의 병반은 세균 누출액으로 덮여 빛이 나고, 잎 전체가 마르면서 갈색으로 변색되고 떨어지게 됨
 - 세균 누출액이 튀거나 접촉으로 이 병이 번지는 원인이 되고 딸기 러너에 의해 확산됨
- ☞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, 모주를 통해 전염되므로 병에 걸린 포기는 제거하여 태우거나 땅에 묻고, 병에 걸렸던 포장의 딸기는 모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함



<잎 뒷면 수침상 증상>



<꽃받침 증상>



<후기 잎 증상>

2. 국화줄기괴저바이러스병 : 예보

- 경남과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국화에 국화줄기괴저바이러스병이 발생하여 큰 피해를 주고 있음
- 국화 줄기에 괴사증상을 보이고 잎이 황화 되거나 괴사반점이 생기는데 감염이 심하게 되면 시들음 증상을 보임

○ 이 병은 꽃노랑총채벌레에 의해 영속전염을 하는 동시에 잎이나 줄기의 상처 등을 통해서 전염되고, 특히 감염된 식물체에서 삼수를 채취할 경우 급속하게 다른 지역으로 전파됨

☞ 토마토나 고추 같은 가지과 작물도 기주이기 때문에 이병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감염된 주는 즉시 제거 소각하고, 총채벌레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청색끈끈이 트랩을 약 5m 간격으로 설치하고 총채벌레가 서식할 수 있는 주변 잡초를 제거

☞ 적심 또는 절화 작업 시 바이러스 즙액 전염 억제용 가위를 사용하고, 발병된 포장이나 그 인근 포장에서 증식용 삼수 채취 금지



<줄기의 괴사 증상>



<국화 잎자루의 괴사 증상>



<잎의 괴사반점 증상>



<고추의 잎 괴사반점(국화 하우스 주변)>

3. 파프리카·피망·고추 등의 사탕무우황화바이러스병 : 예보

- 2012년부터 경남 진주 지역을 중심으로 파프리카, 피망, 고추 등에 검역
병해충인 사탕무우황화바이러스병이 발생하여 피해를 주고 있음
- 이 바이러스병은 진딧물에 의해 영속전염을 하는데, 특히 복숭아혹
진딧물이 가장 대표적인 매개충으로 8월 이후에 정식한 작물의 경우
진딧물 방제를 소홀히 할 경우 감염 위험이 매우 큼
- ☞ 이 병이 발생하였던 온실뿐만 아니라 주변 단지에서는 진딧물 방제를
철저히 하고 병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제거하고 가까운 농촌지도기관에
의뢰하여 정확한 진단 후 방제



<파프리카 퇴색된 증상>



<파프리카 엽맥 황화 증상>

11월 기상전망

(자료 : 기상청)

요 약

맑은 날이 많겠으며,
일시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기온변화가 클 때가 있겠음

□ 날씨 전망

주간별	날 씨 전 망
1주 (11.10~11.16)	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많겠음
2주 (11.17~11.23)	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음
3주 (11.24~11.30)	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겠으며,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음
4주 (12.01~12.07)	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추운 날씨를 보일 때가 있겠음

□ 주간별 예보

주간별	평 균 기 온	강 수 량
1주 (11.10~11.16)	평년(8.3℃)과 비슷하겠음	평년(11.0mm)과 비슷하거나 적겠음
2주 (11.17~11.23)	평년(6.0℃)보다 높거나 비슷하겠음	평년(8.5mm)과 비슷하거나 많겠음
3주 (11.24~11.30)	평년(4.9℃)보다 높겠음	평년(11.5mm)보다 많거나 비슷하겠음
4주 (12.01~12.07)	평년(3.9℃)과 비슷하거나 낮겠음	평년(8.7mm)과 비슷하거나 적겠음

11월 중 주요 농작물 관리 요령

□ 벼농사

- 내년 벼 종자 소금물가리기 후 잘 말려 보관(키다리병 예방)
- 녹비작물 포장 배수구 설치, 벧짚 토양환원 및 논 깊이갈이

□ 밭작물

- 보리, 밀 등 적기 내 파종으로 월동 전 적정 잎수 확보
- 배수 불량한 맥류 재배포장 배수구 설치로 습해 및 동해 방지

□ 마늘·양파

- 마늘 파종 및 양파 정식포장에 피복한 비닐은 흙을 덮어 고정
- 난지형마늘은 월동 전에 싹이 트기 때문에 뿌리의 활착이 잘 되어야 겨울철에 동해피해를 줄일 수 있음
- 양파는 동해 피해예방을 위해 11월 상순까지 정식완료
- 파종·정식 후 생육초기에 적정 토양수분 유지로 뿌리활착 촉진

□ 시설작물

- 지역에 알맞은 작목재배 및 에너지 절감형 안전 작기 선택
- 하우스 보온 및 가온장비 보강 및 작물별 적정온도 유지관리
- 강한 바람에 대비해서 비닐하우스 고정 끈을 튼튼히 매주고,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환기창과 출입문을 닫아줌
- 비닐이 손상된 부위는 신속하게 보수하여 바람피해 예방은 물론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관리
- 작물별로 적온관리를 하되, 야간 최저온도를 과채류는 12℃ 이상, 엽채류는 8℃ 이상 유지되도록 관리